

충남도 “지천댐 결정 존중… 청양·부여 미래도 책임져야”

“건설 필요성·대안 검토 과정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 마련”
도 자체 종합지원계획 추진 예정

충남도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주민 이해와 공감을 위한 충분한 설명과 청양·부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천댐 건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지난 27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지사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을 발표했다.

것은 ‘설명과 공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 하게 될 역할 ▲댐 건설에 따른 청양·부여 홍수 위험 감소 효과 ▲댐 건설 이외 대안과 비교·검토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자료 수집과 논의·판단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비

로소 진정한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양·부여에 댐을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청양·부여의 새로운 발전 동력도 마련한다.

박 지사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두겠다”며 “국가의 물을 담는 댐이라면 청양·부여의 미래까지 담는 댐이 돼야 한다. 국가의 필요로 시작된 사업을 청양·부여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천댐은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교육청

AI 플랫폼 ‘펜즈’ 도입

부산시교육청은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 통합 로그인(SSO) 플랫폼 ‘펜즈(PENZ)’를 1일 부산 지역 전체 초·중·고에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별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시스템으로, 한번의 인증으로 구글·MS·어도비·캔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펜즈는 부산 교육망과 디지털 학습 도구를 합친 이름으로, 전국 교육청 중 처음 도입되는 통합 로그인 시스템이다.

민간 플랫폼 연계 방식으로 예산 약 4억 원을 들여 구축했으며 지난해 5월 한 고교 재학생의 제안에서 출발해 7~8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전면 배포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칠곡군

할머니 래퍼 그룹 3주년 행사

칠곡군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창단 3주년을 맞아 지난 31일 칠곡군청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2024년 세상을 떠난 창단 멤버 서무석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편지 낭독으로 시작해 케이크 컷팅, 랩 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 신4리에서 한글을 배우던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직접 쓴 글을 랩으로 부르며 KBS ‘인간극장’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저출생 극복송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지역 행사 재능기부 공연 등에도 참여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충원율 92% ‘역대최고’

국립창원대학교의 202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이 92.19%로 집계돼 1969년 개교 이래 처음 90%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전년도 88.1%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다.

창원대에 따르면 올해 입학 정원 448명 가운데 413명이 최종 등록했다. 과장별로는 박사 과정이 정원 140명 중 130명 등록해 92.86%, 석사과정은 정원 308명 중 283명 등록해 91.88%를 기록했다. 특히 박사과정은 올해 정원을 지난해보다 10명 늘렸는데도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전원을 채웠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지하수저류댐 사업 선정

218억 들여 용수 공급 시설 조성 하루 1만6000톤 규모 용수 공급

경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218억 원을 투입해 문무대왕면 용당리 대조천 일원에 하루 1만6000톤 규모의 용수 공급 시설을 조성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신청해 경주시를 포함한 3곳이 선정됐다. 사업은 연장 326m, 평균 심도 40m의 지하차수벽과 취수시설을 설치하며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대행한다.

시설이 완공되면 가뭄에 대응할 새로운 수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SMR 국가 산업단지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양남 일반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 등 동경주 지역 주요 미래산업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기반이 마련된다. 문무대왕면과 양남면의 급수체계를 조정해 갑포정수장의 공급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저류댐은 하천 지하 모래·자갈층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의 흐름을 늦추고 물을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취수하는 시설이다.

경주시는 2024년 8월 정부에 사업을 건의한 뒤 주민설명회와 상세조사용역,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방비 일부를 도비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실시 설계와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8년 1월 착공,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산청에 100억 들여 항공부품 공장 확충

산청군-울곡-경남도 MOU

산청군은 지난 31일 경남도청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울곡, 경남도와 총 1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곡이 에어버스 A320 여객기 하루 날개 부품을 추가 수주함에 따라 금서 제2농공단지 내 항공부품 생산기지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곡은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금서 제2농공단지 1만7693㎡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입해 최첨단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을 증설한다. 산청군과 경남도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검토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청은 한국항공우주 산업(KAI) 산청공장이 A320 계열 주날개 상단 패널



산청군은 지난 31일 경남도청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울곡, 경남도와 총 1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청군

을 생산해 온 지역으로, 이미 항공부품 산업의 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

울곡 역시 2012년부터 보잉·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와 협력 관계를 맺어 온 국내 대표 항공 부품 기업 가운데 하나로, 이번 증설로 산청의 항공 부품 생산 기반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 산림재건 본격화

산림경영특구 5곳 지정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재건과 산주·임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1시·군 1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역별 산림재건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31일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일원을 산림경영특구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지난 3월 의성군(1호), 6월 안동시(2호), 7월 30일 영덕군(3호)과 청송군(4호)에 이어 영양군이 5호로 지정됐다.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에 근거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산림경영특구는 단순 벌채·조립 중심의 복구



산불 피해지역에 지정된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산림경영특구 전경.

를 넘어 산림을 소득과 지역경제 기반으로 재건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에는 소득·경관수종 특화 조림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도 등 기반시설 확충, 임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을 지원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서 만나는 AI·메타버스의 미래

‘AI·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포항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를 개최한다. 올해 영상제에서는 AI 영상 상영과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AI·XR 기반 가상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된다.

올해로 3회째인 영상제는 포항·구미·경산 등 3개 도시의 특성을 AI 콘텐츠와 연계해 운영한다. AI 영상 공모전에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총 3,403편이 출품됐다. 포항에서는 ▲AI아트테크 어워즈 ▲GAMFF 영상 상영회 ▲AI 마스터클래스 ▲특별 GV ▲AI 마

술쇼 ▲AI 체험존 등이 진행된다.

4일 오후 7시 열리는 ‘AI 아트테크 어워즈’는 오후 5시 30분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배우 원기준, 민우혁, 김성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AI와 시각특수효과(VFX)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내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GAMFF 그라운드’에서는 AI 포토부스, AI 캐리커처 캔버스 제작, AI 영상 제작, NFC 키팅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4일 오후 3시 30분에는 전지현·구교환 주연의 영화 ‘군체’, 5일 오후 12시에는 유해진·박지훈 주연의 ‘왕과 사는 남자’를 무료 상영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영양고추유통공사

GAP 인증 우수사례 수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한 2026년 제12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양고추유통공사(영양고추GAP작목반)는 생산 부문에서 수상했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현장의 모범 사례를 찾아 인증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고추유통공사(영양고추GAP작목반)는 인증을 활용한 고품질 고추 생산관리와 저탄소 농업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사례를 제시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